

사진 : 김용배 알퐁소(사직대건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 연중 제26주일

**제1독서** 민수기 11,25~29

**화답송** 시편 19(18),8.10.12~13.14(◎ 9ㄱ~)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후렴)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1.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2.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3.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 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4.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야고보서 5,1~6

**복음환호송** 요한 17,17 참조

◎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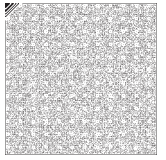
**복음** 마르코 9,38~43.45.47~48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문 없는 집, 담장 없는 마당



9월 순교자성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순교(殉敎)라는 것이 생과사의 기로에 선 마지막 순간의 결단으로 단박에 도달하는 은총이 아닌 만큼, 치열하고 뜨거운 일상의 노고가 없다면 그 영광스러우면서도 다디단 승리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도 폭염의 계절에 힘겨우면서도 정직한 땀을 흘리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온 들판에 알곡이 영글고 벌레들도 땅속으로 들어가며 겨울 준비를 하는 추분(秋分)도 지나고, 추분에 내려가지 못한 제비가 마지막 채비를 차려 강남으로 가고 북쪽에서는 기러기 떼가 내려오는 한로(寒露)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계절, 우리의 한해살이도 조금씩 여미며 마음 깊이 속을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 영성생활도 외적인 이웃, 특별히 가난한 이와

의 관계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고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주어라.”(잠언 25,21)고 했거늘, 편을 가르고 오히려 관계를 냉정하게만 만들 규정에 연연하게 된다면, 불구자의 손, 절름발이의 발, 외눈박이의 눈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살피기도 전에 교회의 운영과 자신의 계획에 맞춰 사람도 일도 재단한다면, 어느 누가 거기에 남겠습니까? 예법에도 서툴고, 말투도 어눌하며, 딱히 주목할만한 일 하나 제대로 치러내지 못할 평범한 위인의 존재가 교회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희를 따르는 사람”(마르 9,38)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은근슬쩍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면, 누군들 어떤 이유에서건 처벌 이유를 못 찾아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건, 혹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이든 그것은 끝내 믿을 만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언행(言行)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기준을 든다면서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마르 9,41)를 규정한 것은 어쩌면 ‘문 없는 집, 담장 없는 마당’ 같은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딱 이만큼, 이 가을 넉넉하게 영글어가기를 바랍니다.



**김준한**  
빈첸시오 신부  
감물생태학습관장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주님을 찬미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한 생을 봉헌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자분들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코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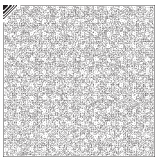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0.1(월)~2(화)  
 김준한 신부(감물생태학습관장)  
 10.3(수)~6(토)  
 유상우 신부(반여성당 보좌)

---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치민 아나운서  
 10.3(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사상 노동사목센터 축복식  
 10.3(수) 본당 리포터  
 출연 : 장귀선 마르첼라(남밀양성당)

**신부들의 수다**  
 10.6(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그 신부들의 선곡표]  
 출연 : 안병영 신부 (용호성당 부주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사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교구에는 초량성당(영어, 베트남), 김해성당(영어), 병영성당(영어), 양산성당(영어), 그리고 하단성당(동티모르)과 대연성당(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노동사목의 역사는 대략 이러합니다. 1989년 5월 4일, '가톨릭노동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사상구 괘법동에서 문을 연 노동사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부터 국내 노동현장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미사와 노동상담을 1993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시작한 노동사목은 다음 해인 2007년에는 무료 진료소 '도로시의 집'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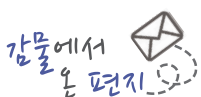
함으로써 이를 더욱 체계화하였습니다. 현재 연간 약 1,000여 명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사목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이사를 반복한 노동사목은 2007년 가톨릭센터에 자리 잡게 되었고, 2012년에는 센터에서 이루어졌던 미사와 의료지원 관련 업무를 초량성당으로 일부 옮겼습니다.

2018년 9월 30일, 노동사목은 사상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2017년 '나눔실천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상성당 옆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였고, 지난 8월에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교님의 주례로 사상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첫 미사와 '노동사목센터' 축복식을 가집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 실천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저희 노동사목은 여기에 투신하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곳 '노동사목센터'는 앞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히 청해봅니다. 저희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사랑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  
노동사목 담당 free6403@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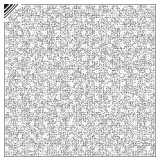
## 가장 큰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 그 거짓말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하는 이 거짓말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 우리는 자연스러움에서 이탈해 부자연스러운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몸의 감각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심미적 감응도 어딘가 왜곡되었습니다. 하늘 가득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어둠을 헤치지 않을 정도로 붉게 물든 저녁노을의 아름다움보다는 밤을 낮보다 더 밝게 비추는 강한 조명 아래 빛나는 백화점 진열대의 상품에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을 풀숲에 깃든 곤충 한 마리를 보고서도 그 작은 생명의 꺼지지 않는 온기를 느끼지를 못하

고,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다며 기겁부터 하고 봅니다. 자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주위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이방인, 이물질인양 경계를 하게 됩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뚤어진 것일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한편으론 우리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로마 8.22)을 알 법도 하건만, 우리는 웅졸하게도 벌레 한 마리마저도 손사래를 치며 멀리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얽혀사는 삶을 더부살이라고 했습니다. 한 생을 살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 앞에서 손님인 양 구경하듯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세상을 온몸의 감각과 이성,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 감물생태학습관

**'평신도 희년' 특별기획 [교회와 여성]**



이천 년을 이어온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까지도 함께했던 여인들,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한 증거자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 사회 안에서도 여성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신비가, 예언자, 지도자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의 존재와 역할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교황청은 교령으로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의 의무기념일을 축일로 승격시키며,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의 사도'로 부른 것을 인용하였고, 오늘날 교회가 여성의 존엄, 새복음화,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신자들에게 마리아

아 막달레나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평신도 희년'을 지내며, 남성과 여성, 평신도와 사제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평신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협력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교회와 여성> 사회교리 주제/심화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정의평화위원회

- 일 시 : 10.17~11.7 수요일 19:00~21:00 (4주간)
- 장 소 : 가톨릭센터 3층 배움터
- 수강료 : 3만원 (할인대상 : 정평위 후원인, 수도자, 사회교리학교 입문과정 수료생 2만원)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
- 신 청 : 10.10(수) 까지
- 전 화 : 051-465-9508
- 이메일 : busanjustice@naver.com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씁니다.

날 짜 및 내 용	강 사
10월 17일 21세기 여성 평신도의 지위	김선실 데레사 -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10월 24일 초기교회 전통에서 보는 마리아 막달레나	전경미 세실리아 - 교부학, 초기교회사 - 가톨릭여성신학회
10월 31일 에디트 슈타인의 마리아론	최우혁 미리암 - 여성신학, 영성신학 - 서강대학교, 가톨릭여성신학회
11월 7일 교회와 여성, 친교공동체 만들기	심현주 올리안나 - 사회윤리신학 - 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사이에서 태어난 나필족(창세 6,4)이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욥기 1,6가 천사들을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필족이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타락 천사들이라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나필'이 히브리어로 "떨어진 자"를 의미하는 것도 이런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나필족이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존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세 6,4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나필족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말이지,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사실, '나필족'은 민수 13,33에도 언급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찰대를 파견하는데(민수 13,1), 사십 일 동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정

찰대가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낙족이 그들의 후손들인데, 키가 커서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하느님께 충실하던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창세 6,4는 그 나필족이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말하는 대목으로, 여기서도 나필족이 언급되자마자, 인류 타락이 이야기되며, 하느님께 충실한 노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홍수라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니 나필족이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타락 천사라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설명입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 순교자 현양 미사

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0일(목) 오륜대순교자성지에서 '순교자 현양 미사'가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손삼석 주교는 강론을 통해 "순교자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까지 마다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힘이다. 때 오

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고 새로운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에 6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순교자들의 얼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 5지구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9월 9일(일) 부산가톨릭대학교 강당

## 2지구 중고등부, 체육대회



9월 16일(일) 마리아수녀회 운동장

##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9월 9일(일) 본당 / 주임 : 최재현 신부, 회장 : 석명희 파비올라

## 3지구 청년연합회, 합동미사



9월 16일(일) 대연성당



9월 16일(일) 본당  
주임 : 강현철 신부, 회장 : 노현식 베다



9월 16일(일) 본당  
주임 : 김영곤 신부, 회장 : 이승덕 알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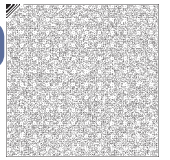
9월 9일(일)~16일(일) 본당  
주임 : 석판홍 신부, 회장 : 정병찬 미카엘



9월 16일(일) 본당  
주임 : 이석희 신부, 회장 : 김동규 아우구스티노



9월 16일(일) 삼계초등학교 / 주임 : 이성주 신부, 회장 : 윤종구 요셉



### 마리아의 비밀

■산티아고 마르틴 지음 ■가톨릭출판사  
■최효선, 최선화, 최진호 옮김 ■15,000원



『마리아의 비밀』은 노년에 접어든 성모님이 한평생을 돌아보며 요한 사도에게 한 말씀을 담은 책으로, 천사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전해 듣고 수락한 순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죽음과 부활까지 성모님의 눈으로 본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 사랑하는 나의 엄마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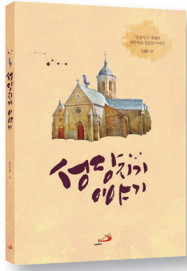
■황가은 지음 ■거북이북스 ■13,800원



다음에서 인기리에 연재 중인 웹툰을 엮은 것으로, 딸이 엄마에게 바치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연서다. 행복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가 담긴 작품으로 작가는 특별한 기억력과 감성으로, 엄마를 향한 애뜻하고 섬세한 애정을 담아낸다. 현재 작가는 신앙잡지 CUM에서 '주일학교 이야기' 코너를 엮어내고 있다.

### 성당지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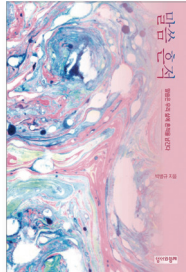
■SSP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11,000원



이 책에는 저자의 프랑스 유학시절 경험했던 자살다리에 얽힌 사연과 입양 소년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눈물 흘려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었던 진솔한 사목 일기 등 신자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한 사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 말씀 흔적

■박병규 지음 ■성서와함께 ■11,000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이는 많지만, 그 공부를 삶과 연결시키는 데는 부족한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박병규 신부의 『말씀 흔적』은 말씀을 통해 '세상'과 '삶'에 대해 사유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합니다.

### 10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부산] 10.14(일) / 21(일) 15:00~18:50  
예비부부와 기존부부 모두 수강 가능  
100% 인터넷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율미사(부산)

· 10.5(금) 13:30(목주기도) 14:00(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629-8760(성소국)

### 신학생 부모 피정

· 10.21(일) 10:00 · 교구청 / 회비: 1만원  
입금: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필기도구  
신청: 10.15(월)까지 팩스(629-8764)  
문의: 629-8760(성소국)

### 제10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13(토)~11.10(토) 매주 토요일 15:00~21:00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대상: 자녀를 둔 아버지 (종교무관)  
접수: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문의: 010-3460-0696, 010-6408-6111

### 제5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1(목)~11.8(목) 매주 목요일 10:00~15:00  
(5주 과정) · 부산가정성당  
대상: 자녀를 둔 어머니 (종교무관)  
접수: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문의: 010-9907-1767, 010-2202-0470

### 본 당

### 용호성당 은혜의 밤

· 10.8(월) 19:00 / 주제: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  
강사: 김명선 신부(전포성당 주임)  
내용: 강의, 미사 / 문의: 010-3112-0192

### 기관·제 단체·위원회

### 부산 ME 소개모임

부산: 10.1(월) 20:00 남천성당  
울산: 10.7(일) 14:00 복산성당  
361차 ME주말: 10.12(금)~14(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수시 / 문의: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 혼인미사 예식 및 예약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11시, 13시, 15시, 17시  
문의 및 예약: 051.441.3500 (수~일)  
\* 2018년 성전봉헌기념 특가 예약 중 \*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교구 홈페이지 '책과 나는 정답' 코너에 권장도서의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2019학년도 성모학원 산하 고등학교 신규교사 모집

- ▶ 선발과목 및 인원: 수학 2명, 지리 1명, 체육 2명, 전자 4명
- ▶ 응시원서 접수: 2018.10.22(월)~26(금)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세부사항: 성모학원 산하 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대양전자통신고 <http://daeyang.hs.kr> 데레사여고 <http://trs.hs.kr>  
성모여고 <http://sung-mo.hs.kr> 지산고 <http://jisan.hs.kr>
- ▶ 문의사항: 051)510-0712 (성모학원 법인사무처)

<p><b>(주)씨피여행사</b> 1. 12/7 이태리일주 9일 선착순 LH275만원 (지도신부님: 안현철 / 이태리 신부님) 2. 11/12 제주성지순례 3일(2인1실) 36만원 본당행사 전세버스 예약 접수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p>	<p><b>엘치과</b> 임플란트 치주 전문 최홍배 (베드로) 치아교정 전문 성지현 (아네스) <b>751-2882</b> 해운대 이마트 옆 센트럴메디타워 10층 (중동역 7번 출구)</p>	<p><b>50년 전통 명신당</b> 묵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b>646-7885</b> <b>010-3599-7885</b> 부산은혜 범일점 맞은편</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b>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b> 정경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b>744-8181 www.bmu.co.kr</b> 상담 010-5616-8600</p>	<p>포장이사 전문업체 <b>성신익스프레스</b>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b>242-4222, 1522-4324</b> <b>www.ss0924.com</b></p>
<p><b>장정애 한복디자이너</b> <b>동국주단</b> 최 상 희(안나) 장정애(요안나) (본점) 부산진시청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b>997-0707, 010-9243-5776</b></p>	<p><b>라파엘여행사</b> 11/11, 12/2 나카사키 4일 949,000원 11/11, 12/16 다성 성모발현지 5일 129만원 2/2 [규정특선]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11/9, 12/20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11/12, 12/10 성모님발현지 10일 299만원 <b>성지순례 (02)778-8565</b></p>	<p><b>법무법인 울강</b>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b>717-2570, 010-7455-1031</b></p>	<p><b>거제주단</b> 주단, 포복,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b>632-0696</b> <b>010-9331-6633</b>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p>	<p><b>이상열</b> <b>마취 통증의학과 의원</b>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 의 상 열(베드로) <b>516-0888</b></p>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기도회  
 · 10.1(월) 19:30 전포성당  
 · 10.3(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54일(9일)기도  
 · 10.3(수) 11:00~16:00  
 강사: 이창향 신부(성바오로수도회)  
 회비: 2만원(기도서, 봉헌초 포함)  
 - 금요일야기도회  
 · 10.5(금) 23:00~6(토) 04:00  
 강사: 이광우 신부(하단성당 부주임)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10.8(월) 11:00~16:00 중식제공, 도유와 안수  
 - 29기 성령묵상회 심화과정 2단계(2차)  
 · 10.14(일) 10:00~15:50  
 회비: 1만원 / 성경, 미사도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 10.2(화) 11:00 · 중앙성당 / 대상: 전 신자  
 주례: 임성환 신부 / 문의: 466-2290

**지체장애인지회 후원회 미사**  
 · 10.2(화) 14:00 · 부곡동 사회사목구 4층 강당  
 주례: 인상현 신부 / 문의: 517-0613

**농아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10.5(금) 11:00 · 농아인복지회 3층 성전  
 문의: 751-8693

**파티마의세계사도직 10월 묵주기도 100단**  
 · 10.1, 8, 15, 22(월) 09:30~ · 푸른군대 경당

**첫 금 철야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철야: 10.5(금) 21:30 푸른군대 경당  
 내용: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신심: 10.6(토) 09:30 기도, 11:00 미사 - 생명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있음 / 문의: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제26회 보시니 좋더라 사진전**

■ 일 시 ■ 10월 15일(월)~20일(토) 6일간  
 (개전식: 10월 15일(월) 18:30)

■ 장 소 ■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주최: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 미사**

김해: 10.1(월) 11:00 임호성당  
 울산: 10.2(화) 11:00 아음성당  
 문의: 782-0765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사무실 6층 (51, 20평 / 15, 88평)  
 문의: 462-1870(행정실)

**제24기 인문고전대학 개강**

개강: 10.2(화) 19:00 가톨릭센터  
 과정: 매주 화, 수, 목 강의(10주간)  
 화: 불이 사랑으로 세상 살기(권서용)  
 수: 유포피아 이야기(이동문)  
 목: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 속의 '메멘토 모리'  
 입학(김해룡) / 문의: 510-0554(인문학연구소)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0.5(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582-1774, 010-9081-1743

**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사업회 후원회미사**

· 10.6(토) 10:00 · 송도성당  
 문의: 241-1601, 253-1601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하는 떼제 기도**

· 10.13(토) 18:30~21:00 · 양정동 성모여고 내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 수녀회 / 회비: 5천원  
 대상: 기도하고 싶은 젊은이(선착순30명)  
 문의: 010-2430-7816(조 테레사 수녀)

**청년 MSC 마음피정 <자연스러운 하느님과 나>**

· 10.19(금) 19:00~21(일) 13:00 / 피정비: 6만원  
 대상: 20세~45세이하 남녀미혼청년  
 문의: 010-4270-3103(예수성심선교수녀회)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1.22(목)~12.5(수) · 서유럽, 스페인  
 (로마, 아씨시, 바르셀로나, 파티마)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0.7(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성공품반외방선교회	10.7(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10.13(토) 15:00~14(일) 13:00	왜관 수도원 본원	010-8353-2323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2급) - 야간반**  
 (지도교수: 백경혜 한국지식자원개발원 부산지부장)  
**10/15~11/19 매주 월 19:00~21:00 (총6주)**  
 문의: 510-0951~3, edu.cup.ac.kr  
 입학처: 051-510-0701~4 / www.ipsi.cup.ac.kr

**"독감 예방접종 실시"**  
 한번 접종으로 올 겨울 우리 가족 건강 OK!  
 부산성모병원에서 미리미리 챙기세요~  
 무료접종 대상자 및 성인, 임산부, 청소년 또한  
 접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외래 진료 시 진료과장님과 상의하세요!  
**문의: 933-7242, 7265(내과), 933-7988-9**  
**(소아청소년과), 933-7114(대표전화)**

**가톨릭센터**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다목적 공간** **에코(ECHO)**  
 (복음의 메아리, 믿음의 반향, 마음의 울림)  
**합주, 연습실, 녹음실, 자료실의 다목적 공간 오픈!**  
**많은 관심과 사용문의 바랍니다**  
 사용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선비목집**  
 목 정식, 목 오리 정식  
 클래식, 목 부침개, 목 정반막국수  
 목 수제비, 목 새싹비빔밥  
 ※ 코다리찜 정식  
 (코다리찜, 뷔셀러드, 뷔체)  
**553-3929** 동래 메가마트 정문 옆, 주차안

매매·교환·위탁·폐차·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조남철(텔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신차의 모든 것**  
 (제네시스, 아반테 등)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성가병원**  
 손·발 중점 진료  
 정형·수부외과 전문의  
 김우식(알렉산델)  
 위, 대장 내시경 전문의 이동건  
 지하철 1호선 범일역 9번 출구  
**645-9771~5**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조·에스테틱

**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희(요셉), 손해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동래 광안**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아녜스)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뿔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에스텔)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더고운 피부과 의원**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세원(마태오)  
**558-7575**  
 은전역 동래출플러스(뽀뽀) 우성빌딩 3층